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3년 12월 02일

연말 소비시즌 기대와 글로벌 위험프리미엄 축소

위험프리미엄 축소되며 주식시장 강세와 함께 원유가 안정, 엔화 약세 진행

- **글로벌 위험프리미엄 감소, 원/엔 환율 추가하락 속도 둔화 전망**

지난 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 시장은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이란 핵협상 합의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프리미엄 완화로 외환시장, 원자재 시장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연말 강세장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함께 엔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 상향과 함께 독일 총선 2 달 만에 기민당+사민당 간의 연정 합의에 따른 정국 안정기대로 영국을 제외한 유럽 시장도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일본 디플레이션 탈출 기대 고조 불구 주가 상승 탄력 둔화 전망

일본의 경우 지난 주 발표된 10 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도 2008 년 10 월 이래 가장 높은 0.3%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물가 상승이 엔약세로 인한 수입 식료품 및 석유류 등 수입물가 상승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두되며 일본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금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 증시의 경우 다음 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 및 이와 관련된 양적완화 축소 시기와 관련된 우려를 감안할 때 당분간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상수지/GDP 추가 상승 가능성 한계 상황 감안 원/엔 추가 하락 압력 둔화 전망

한편,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 및 무역수지 적자 지속 및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일본엔화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사상 최고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IMF 구제금융 직후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원화절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한국의 수출이 증가할 경우 수입도 동반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국 내수시장 회복이 진행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음에 따라 원/엔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고용지표, ECB 금융정책회의 관심 필요. 연말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로 랠리 지속 전망

금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유럽에서는 ECB 금융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엔화 대비 상대적 강세가 심화되고 있는 유로화와 관련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말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와 내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지난 주에 이어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경우 IPO 재개에 따른 단기적 수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hibit 1 엔/달러 환율과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식품,에너지제외)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원/엔 환율과 한, 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지역별주식시장전망

- **미국**

지난 주 추수감사절 연휴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HP 의 실적 호조로 IT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월마트, JC 페니, 아마존닷컴, 이베이 등의 소매업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번 주에도 사이버먼데이가 이어지며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의 소매판매 실적과 더해진 결과가 연말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북동부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감소한 매출 감소분을 사이버먼데이 매출 호조세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12 월 4 일에는 베이지북 발표가 예정돼 있어 미국의 경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12/6 미국 11 월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월 7.3%보다 0.1% 개선된 7.2%로 컨센서스가 형성됐지만 12 월 또는 1 월 QE 축소 시작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지표인 11 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50 을 상회한 확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유럽**

지난 주 유럽 지역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되었고,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합의 소식이 증시에 탄력을 더해주었다. 경제지표는 11월 물가상승률 0.9%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 2%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10월 실업률은 12.1%를 기록하며 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번 주 12/2일에는 유로존 11월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으로 10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2013년 6월 이후 5개월 연속 경기 기준선을 상회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10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3일 발표되는데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유로존 10월 소매판매가 발표되는 가운데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의 소매판매가 주목되는 가운데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월 5일에는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기준 금리는 0.25%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 정책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립서비스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중국 제조업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2/1일 국가통계국 발표 11월 제조업 PMI는 51.4%를 기록하여 예상치 51.1%를 상회하였다. 신규수출주문지수는 회복세를 나타낸 반면 생산경영활동 예측지수는 하락세를 보여 기업들의 향후 생산경영 활동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전망을 나타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금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월 30일 국무원은 '우선주 시범운영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조달 채널 다원화와 직접융자 비중 확대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발전 촉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같은 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신주 발행체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통해 IPO 규제 개선에 대해 밝히면서 과거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기업공개제도 및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친시장적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50개 기업들이 심사를 거쳐 신규 상장이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기적으로 IPO 재개시 일시적인 유동성 위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에 발표되는 11월 HSBC 제조업 PMI 확정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미국 사이버먼데이를 비롯하여 소비지표의 개선과 함께 11 월 소매판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로 인하여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자동차 섹터는 11 월 월간 자동차 판매량의 개선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 월 결산기업의 배당으로 인하여 고배당주의 매력도가 높아진 가운데, 삼성전자 플래그쉽 스마트폰의 부품주에 대한 기대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주부터 개선되고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 흐름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 미주

➢ **경제**

미국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을 집계한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9월 지수가 2006년 2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지만 주택거래 추이를 보여주는 잠정 주택매매 지수는 전월보다 0.6% 떨어진 102.1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편 10월 건축허가 건수가 연율 기준 103만건을 기록하며 97만4000건을 기록했던 9월에 비해 6.2% 증가했다. 건설 회사들이 내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지표도 혼조세를 보였다. 1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확정치) 75.1로 예상치 73.1, 전월치 72.0를 상회한 반면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70.4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편, 10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비 2.0% 감소하여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여 제조업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31만6000건으로 전망치 33만건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고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 **주식**

지난 주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와 S&P500 지수가 0.1% 가까이 오르면서 8주 연속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1.7%로 크게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HP의 실적 호전, 애플의 지난달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무려 76%에 달했다는 소식 등으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되면서 IT 섹터가 1.7% 상승했다. 소매주들과 일부 제약 기업들의 강세도 돋보였다. 월마트는 홀리데이 쇼핑시즌 방문객이 평소보다 160% 이상 늘었다고 밝혀 2.7% 상승했고 JC페니는 약 11% 상승했다. 바이오젠과 길리드 사이언스는 각각 유럽에서의 특허권 보호기간 획득과 신제품 시판 허가에 크게 상승했다. 한편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에너지 섹터가 2%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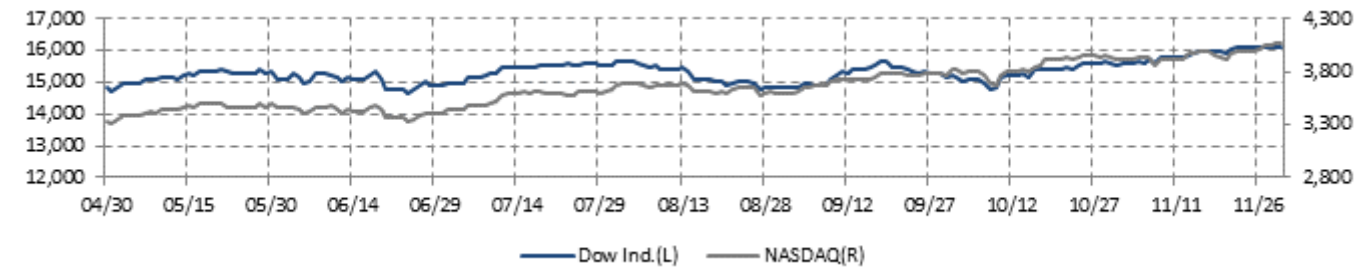
➢ **채권&외환**

지난 주 미국 국채와 달러인덱스는 혼조 양상을 보였다. 미국 재무부의 5년물 국채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경제 지표가 혼조 양상을 보였고 추수 감사절 연휴를 앞둔 투자자들의 관망세 영향으로 제한된 움직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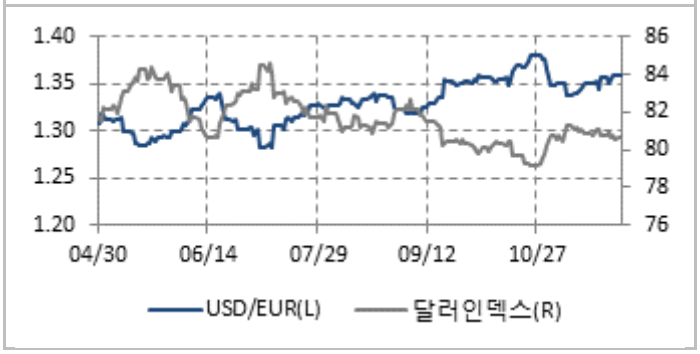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11-26	미국	미결주택매매(전월대비)	(%)	1.00	-0.60	-5.60	-1.60	5.0
발표	2013-11-26	미국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5.00	1.90	3.60	-3.10	-1.7
발표	2013-11-26	미국	건축허가 (전월대비)	(%)	1.00	5.20	-3.80	4.20	9.00
발표	2013-11-26	미국	S&P/CS 종합-20 전년대비	(%)	13.00	13.29	12.82	0.29	0.47
발표	2013-11-26	미국	주택가격지수(전월대비)	(%)	0.40	0.30	0.30	-0.10	0.00
발표	2013-11-27	미국	소비자기대지수		72.60	70.40	71.20	-2.20	-0.80
발표	2013-11-27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0.30	-2.30		2.00
발표	2013-11-27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0.00	316.00	323.00	-14.00	-7.00
발표	2013-11-27	미국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2,850.00	2,776.00	2,876.00	-74.00	-100
발표	2013-11-27	미국	내구재 주문	(%)	-2.00	-2.00	3.70	0.00	-5.70
발표	2013-11-27	미국	시카고 구매자협회		60.00	63.00	65.90	3.00	-2.90
발표	2013-11-27	미국	미시간대 기대지수		73.10	75.10	72.00	2.00	3.10
발표	2013-11-28	미국	선행지수	(%)	0.00	0.20	0.70	0.20	-0.50
예정	2013-12-03	미국	ISM 제조업지수		55.10		56.40		
예정	2013-12-03	미국	ISM 뉴욕	(%)			5,930.00		
예정	2013-12-04	미국	ADP취업자 변동		165.00		130.00		
예정	2013-12-04	미국	무역수지	($)	-40.20		-41.80		
예정	2013-12-05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	(%)	5,500.00		5,540.00		
예정	2013-12-05	미국	신규주택매매 (전월대비)						
예정	2013-12-05	미국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0.00	0.00	0.00	0.00	0.00
예정	2013-12-06	미국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183.00		204.00		
예정	2013-12-06	미국	실업률	(%)	7.20		7.30		
예정	2013-12-06	미국	미시간대 기대지수		76.00		75.10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C World	402.1	0.4	0.7	10.5	18.3
다우종합	16,086.4	0.1	3.0	8.6	22.8
NASDAQ	4,059.9	1.7	3.3	13.1	34.5
S&P 500	1,805.8	0.1	2.4	10.6	26.6
S&P 500 에너지	632.7	-2.0	0.3	6.4	18.7
S&P 500 소재	278.9	-1.0	0.9	9.6	17.4
S&P 500 산업재	434.9	-0.1	3.3	14.5	32.3
S&P 500 경기소비재	519.1	1.1	3.6	13.8	38.0
S&P 500 필수소비재	441.6	-0.5	0.9	8.7	22.4
S&P 500 헬스케어	638.1	-0.0	4.0	12.2	37.8
S&P 500 금융	288.9	-0.0	3.2	10.5	30.6
S&P 500 IT	562.4	1.8	3.3	11.4	21.2
S&P 500 통신서비스	156.1	-0.8	-2.7	3.9	6.9
S&P 500 유틸리티	192.2	-1.7	-2.9	2.0	8.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종목명	종가	수익률(%)			
	(USD)	(1 주)	(1 개월)	(3 개월)	(YTD)
BIOGEN IDEC INC	291.0	15.3	14.4	35.9	98.8
CELGENE CORP	27.4	9.3	14.7	21.4	91.9
GILEAD SCIENCES INC	556.1	6.7	7.6	13.1	4.5
BANK OF AMERICA CORP	393.6	6.7	8.5	38.6	56.9
JPMORGAN CHASE & CO	66.1	5.2	5.4	13.6	31.8
COMCAST CORP-CLASS A	166.6	5.2	4.5	19.2	66.1
CHEVRON CORP	49.9	5.1	4.5	17.5	33.5
FACEBOOK INC-A	23.8	-5.5	-2.8	8.1	15.6
EBAY INC	179.7	-2.4	-1.3	-1.6	-6.2
INTEL CORP	49.6	-1.5	-2.9	3.8	14.7
BAIDU INC - SPON ADR	93.5	-1.3	5.1	7.1	8.0
AMGEN INC	21.3	-1.0	-6.9	-9.4	8.1
NEWS CORP - CLASS A	33.5	-0.9	-1.1	9.2	31.7
HOME DEPOT INC	26.7	-0.9	1.7	15.4	27.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국고채 10년	2.75	0.1	20.6	-4.0
국고채 5년	1.37	2.3	5.4	-27.1
LIBOR 3M	0.24	0.3	-0.3	-2.0
EUR-LIBOR 3M	0.19	1.5	1.4	3.6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달러 인덱스	80.68	-0.0	1.1	-1.7
USD/EUR	1.359	0.2	-1.2	2.8
JPY/USD	102.44	-1.1	-4.1	-4.2
CNY/USD	6.09	-0.0	0.0	0.4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 유럽

➢ 경제

지난 주 유럽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발표되었다. 영국의 3 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가 전분기보다 0.8% 증가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1.0% 증가했던 2010 년 2 분기 이후 3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존 경제 대국 독일의 민간연구소 GfK 12 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4 로 지난 11 월 7.1 보다 0.3 포인트 오르면서 6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유로존 11 월 경기기대지수도 98.5 를 기록해 예상치 98 을 상회했고 2011 년 10 월 9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유럽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주요 지표로 주목된 유로존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지수도 발표되었다. 유로존의 10 월 실업률이 12.1%를 기록해 4 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유로존의 11 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달보다 0.9% 상승했다. 이는 0.7%를 기록한 지난 10 월 CPI 와 전문가 예상치였던 0.8% 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디플레 우려는 지속되고 있어 투자 심리 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S&P 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stable)'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 네덜란드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 주식

유럽증시는 대체로 상승했다. 3 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가는 가운데 유럽 기업들의 실적이 실망스럽다는 점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전전주 주말 극적으로 타결된 이란 핵협상으로 인해 위험 자산 선호가 강해진 영향과 독일의 연립정부 구성 합의와 경제 지표 호조, 경기 심리 지표 개선이 증시 상승세에 큰 힘으로 작용했다. 독일은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는데, 독일 CDU 와 보수 여당들은 그 동안 사민당과의 연정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전국 최저임금제 도입과 연금 인상, 추가 과세 없는 인프라 건설 방안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독일 DAX 지수는 9,400 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간 기준으로 2.0% 상승했다. 유로존 주변국 증시도 크게 상승했다. 신용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된 스페인 대표 지수가 1.7% 상승했고 포르투갈, 그리스가 각각 3.0%, 2.3%로 크게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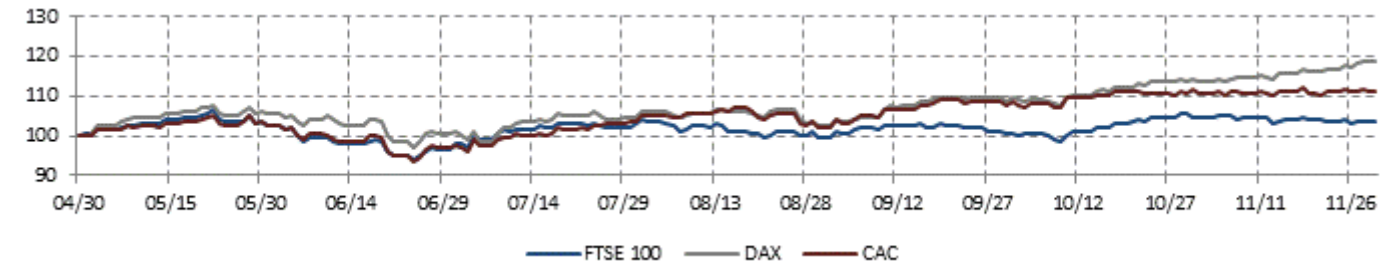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유로존의 국채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세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스페인과 그리스의 10 년 국채 가격은 증시에 자금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채권 시장의 주목도가 떨어지며 채권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 유로화는 전주대비 0.2% 상승에 그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Exhibit 11 유럽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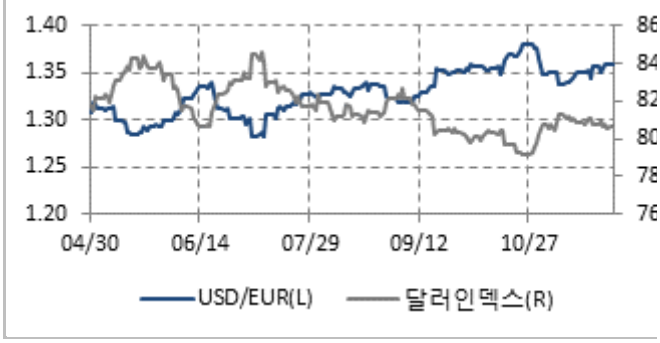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11-27	독일	GfK 소비자 기대지수		7.10	7.40	7.00	0.30	0.40
발표	2013-11-27	영국	GDP (전분기기대비)	(%)	0.8	0.8	0.8	0.00	0.00
발표	2013-11-28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98	98.5	97.8	0.50	0.70
발표	2013-11-29	독일	소매판매 (전월대비)	(%)	0.50	-0.80	-0.40	-1.30	-0.40
발표	2013-11-29	유로존	실업률	(%)	12.20	12.10	12.20	-0.10	-0.10
발표	2013-11-29	유로존	CPI 예상 YoY	(%)	0.80	0.90	0.70	0.10	0.20
예정	2013-12-02	프랑스	PMI 제조업		47.80		47.80		
예정	2013-12-02	독일	PMI 제조업		52.50		52.50		
예정	2013-12-02	유로존	PMI 제조업		51.50		51.50		
예정	2013-12-02	영국	PMI 제조업		56.10		56.00		
예정	2013-12-04	유로존	PMI Composite		51.50		51.50		
예정	2013-12-04	유로존	GDP SA 전기대비	(%)	0.10		0.10		
예정	2013-12-04	유로존	소매판매 (전월대비)	(%)	0.10		-0.60		
예정	2013-12-05	영국	영국은행 은행 금리	(%)	0.50		0.50		
예정	2013-12-05	유로존	ECB 금리 공시	(%)	0.25		0.25		
예정	2013-12-06	독일	공장수주 전월비	(%)	-1.00		3.30		

Exhibit 12 유럽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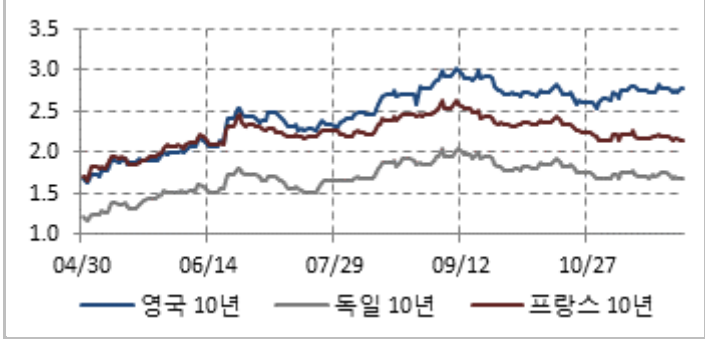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3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4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5 유럽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EMU	101.6	1.0	1.9	12.9	19.4
FTSE EUROTOP 100	2,648.6	0.5	1.2	9.0	13.9
Euro Stoxx 50	3,086.6	1.0	1.5	13.4	17.1
영국 FTSE 100	6,650.6	-0.4	-1.9	3.7	12.8
독일 DAX	9,405.3	2.0	4.4	16.1	23.6
프랑스 CAC 40	4,295.2	0.4	0.5	9.2	18.0
이탈리아 FTSE MIB	19,021.5	1.1	-0.8	14.0	16.9
스페인 IBEX 35	9,837.6	1.7	0.6	18.7	20.4
포르투갈 PSI 20	6,537.8	3.0	3.5	12.6	15.6
그리스 ASE	1,195.7	2.3	1.9	32.9	31.7
스위스 SPI	7,867.3	0.2	0.6	7.0	25.1
러시아 RTS	1,405.9	-2.7	-5.8	8.9	-7.9
터키 ISE 100	75,748.3	0.1	-4.0	14.1	-3.1
남아공 TOP40	40,169.3	1.3	-1.4	6.1	15.4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6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 bn)	수익률(%)	
				(1 주)	(1 개월)
프랑스	ALCATEL-LUCENT	IT	11.8	8.7	16.5
독일	K+S AG-REG	소재	5.4	7.2	8.8
독일	FRESENIUS MEDICAL CARE AG &	헬스케어	21.5	7.1	5.6
독일	COMMERZBANK AG	금융	17.0	6.8	15.6
영국	PETROFAC LTD	에너지	7.2	6.3	-13.8
독일	FRESENIUS SE & CO KGAA	헬스케어	25.4	6.1	9.4
영국	BARCLAYS PLC	금융	71.4	5.7	2.1
프랑스	ACCOR SA	경기소비재	10.0	-4.7	-2.2
프랑스	PERNOD RICARD SA	필수소비재	30.1	-3.9	-5.7
프랑스	VEOLIA ENVIRONNEMENT	유틸리티	8.9	-3.4	-5.5
영국	SSE PLC	유틸리티	20.9	-3.1	-7.9
영국	JOHNSON MATTHEY PLC	소재	10.6	-3.0	5.9
영국	SEVERN TRENT PLC	유틸리티	6.9	-2.5	-6.3
프랑스	DANONE	필수소비재	45.9	-2.5	-2.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주요 환율/채권	종가(%)	변동률(%, bp)		
		(1 주)	(1 개월)	(3 개월)
USD/EUR	1.359	0.2	-1.2	2.8
영국 10년	2.8	-2.1	22.9	-0.3
독일 10년	1.7	-5.4	0.5	-16.3
프랑스 10년	2.2	-5.4	-4.1	-32.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8 남유럽 채권 지표

주요국 채권	종가	변동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이탈리아 10년	4.1	-2.2	-13.2	-34.3
스페인 10년	4.1	1.7	6.0	-41.3
포르투갈 10년	5.8	-9.6	-34.2	-83.2
그리스 10년	8.7	1.1	36.4	-148.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 아시아

➢ 경제

중국 제조업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12 월 1 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11 월 제조업 PMI 는 51.4 를 기록하여 예상치 51.1 을 상회하였다. 세부지표로 볼 때 신규수출주문지수는 50.6 로 전월 대비 0.2P 증가하여 수출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생산경영활동 예측지수는 54.9 로 전월 대비 2.6P 하락하여 향후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나타냈다.
일본의 10 월 소매판매 규모는 11 조 2030 억 엔으로 YoY+ 2.3% 증가하여 예상치 2.1% 증가전망을 소폭 상회하여 석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판매가 14.8% 급증했다. 반면 실업률은 4.0%로 집계되어 전월과 같은 수준이나 예상치 3.9%를 상회했다. 일본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9% 상승, 전월의 0.7%를 상회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여 지난 2008 년 11 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한편, 일본 물가 상승은 수요 견인에 의한 상승보다는 에너지 가격과 수입 물가 상승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식

지난주 중국 증시는 주 초반 전주 급등에 따른 경계심리로 조정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 정부의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융주 등 경기민감주가 강세를 보여 상해종합지수가 전주 대비 1.1% 상승하였다. 홍콩 항셍지수도 본토 증시와 강한 동조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 및 엔화 가치 하락으로 닛케이 지수는 전주 대비 1.8% 상승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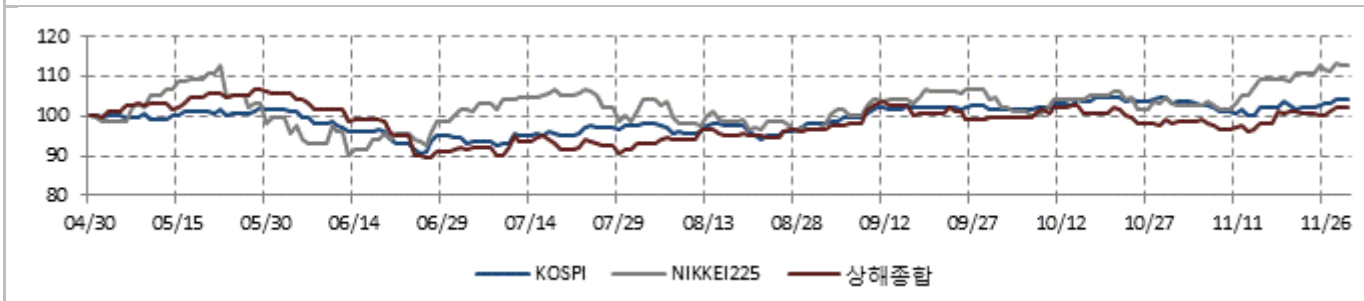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주 중국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170 억 위안의 순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였다. Shibor O/N, 7 일물 금리는 안정세를 나타낸 반면 14 일물과 30 일물 금리는 6.0%를 초과하여 연말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을 보였다. 엔 달러 환율은 지난주 100 엔 돌파에 이어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 102 엔 대로 마감하여 6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Exhibit 19 아시아 경제 지표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11-26	한국	소비자 기대지수			107.00	106.00		-1.00
발표	2013-11-26	일본	기업 서비스 가격 지수 YoY	(%)	0.90	0.80	0.70	-0.10	-0.10
발표	1900-01-01	한국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		1.00	1.00		1.00
발표	2013-11-28	한국	BoP 경상수지	(백만불)		9,507.60	6,571.10		-2,936.50
발표	2013-11-28	일본	소매판매 (전월대비)	(%)	-0.80	-1.00	1.80	-0.20	2.80
발표	2013-11-28	중국	산업 수익 연초대비 전년대비	(%)		13.70	13.50		-0.20
발표	2013-11-29	한국	산업생산 SA 전월비	(%)	0.80	1.80	-2.10	1.00	-3.90
발표	2013-11-29	일본	실업률	(%)	3.90	4.00	4.00	0.10	0.00
발표	2013-11-29	일본	전국 CPI (전년대비)	(%)	1.10	1.10	1.10	0.00	0.00
발표	2013-11-29	일본	전국 CPI (전년대비, 신선식품제외)	(%)	0.90	0.90	0.70	0.00	0.20
발표	2013-11-29	일본	광공업생산 MoM	(%)	2.00	0.50	1.30	-1.50	0.80
발표	2013-11-29	중국	선행지수				99.64		
발표	2013-12-01	한국	수출 YoY	(%)	3.00	0.2%	7.30	-2.8	7.1
발표	2013-12-01	한국	수입 YoY	(%)	4.40	-0.6%	5.10	-5	5.7
발표	2013-12-01	한국	무역수지	(백만불)	45.50	48.04	48.99	2.54	0.95
발표	2013-12-01	중국	제조업 PMI		51.10	51.40	51.40		
예정	2013-12-02	한국	CPI (전월대비)	(%)	-0.10		-0.30		
예정	2013-12-02	중국	HSBC/Markit 제조업 PMI		50.50		50.90		
예정	2013-12-02	일본	자동차 판매 YoY	(%)			17.30		
예정	2013-12-03	중국	비제조업 PMI				56.30		
예정	2013-12-04	중국	HSBC/Markit 서비스 PMI				52.60		
예정	2013-12-05	한국	GDP (전년동기대비)	(%)			3.30		

Exhibit 20 아시아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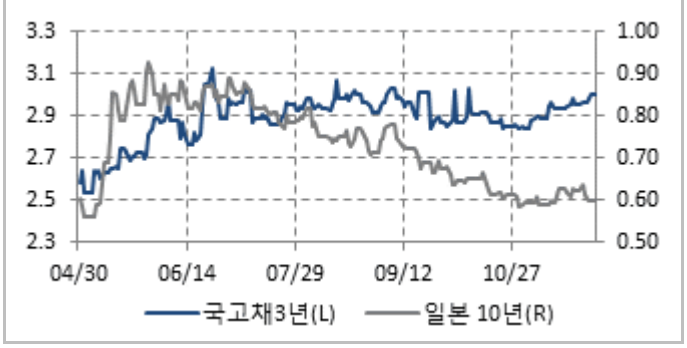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1 원화환율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2 한국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3 아시아주요국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sia Pacific	142.1	0.6	-0.8	9.1	9.8
MSCI EM	1,018.3	0.9	-2.3	9.5	-3.5
한국 KOSPI	2,044.9	1.9	-0.7	6.2	2.4
일본 NIKKEI 225	15,661.9	1.8	8.0	17.0	50.7
중국상해종합	2,220.5	1.1	2.8	5.8	-2.1
홍콩항생	23,881.3	0.8	2.5	9.9	5.4
호주 ASX 200	5,320.1	-0.3	-2.0	3.6	14.4
뉴질랜드 NZX 50	4,795.0	-0.5	-1.5	5.6	17.9
인도 SENSEX 30	20,791.9	2.8	-1.2	11.7	7.0
싱가포르 STI	3,176.4	0.1	-1.7	4.9	0.3
태국 SET	1,371.1	0.9	-4.2	5.9	-1.5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256.4	-1.4	-7.0	1.5	-1.4
필리핀PSEi	6,208.8	2.0	-5.9	2.2	6.8
베트남호치민	507.8	0.4	1.7	7.4	22.7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4 아시아주요종목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bn)	수익률(%) (1 주)	(1 개월)
중국	SANAN OPTOELECTRONICS CO L-A	IT	5.8	15.4	18.0
한국	SK HYNIX INC	IT	23.8	9.3	10.8
중국	ANHUI CONCH CEMENT CO LTD-A	소재	16.8	8.8	15.7
한국	NAVER CORP	IT	21.6	8.8	15.9
중국	GREAT WALL MOTOR CO LTD-A	경기소비재	21.1	7.3	6.9
한국	GREEN CROSS CORP	헬스케어	1.4	7.0	-0.4
중국	INNER MONGOLIA BAOTOU STEE-A	소재	10.5	6.7	5.3
중국	GUANGZHOU AUTOMOBILE GROUP-A	경기소비재	9.2	-4.9	8.4
일본	JAPAN TOBACCO INC	필수소비재	67.7	-4.6	-2.5
홍콩	LI & FUNG LTD	경기소비재	11.4	-3.6	-3.6
중국	PETROCHINA CO LTD-H	에너지	235.2	-2.7	3.3
중국	PETROCHINA CO LTD-A	에너지	235.2	-2.3	0.9
한국	KOREA ELECTRIC POWER CORP	유틸리티	19.4	-2.1	12.9
일본	SUMITOMO MITSUI FINANCIAL GR	금융	70.1	-1.9	7.5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5 아시아주요채권지표

주요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한국 국채 5년	3.36	5.3	32.1	19.2
일본 10년	0.60	-2.4	1.6	-11.6
중국 10년	4.40	-22.2	18.7	38.2
호주 10년	4.22	-10.0	24.8	32.6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6 달러환율추이

주요환율	종가	통화가치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KRW/USD	1,058.20	0.21	0.20	4.90
JPY/USD	102.44	-1.14	-4.06	-4.17
CNY/USD	6.09	-0.01	0.01	0.43
AUD/USD	1.10	-0.82	-4.23	2.32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한국**

전주 한국증시는 연말 소비수요 회복과 국내 경기여건 개선 기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1.9% 상승을 보였다.

월초부터 시작한 미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추수감사절 세일을 지속하여 11 월 소매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IT 섹터의 상승률이 높았다. 국내 연말소비도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주초 한파로 인한 의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의류주와 필수소비재 주도 상승하였다. 한편, 자동차 주는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로 인한 외국인매도로 보합권으로 마감하였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주간 기준 3480 억 원이 순유입되어 주가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Exhibit 27 증시주변자금현황

(십억원)	Close	1W(△)	1M(△)	3M(△)	6M(△)	YTD(△)
고객예탁금	14,272.6	139	-2,221	-3,714	-4,114	-3,742
국내주식형펀드	84,047	348	-1,370	-7,123	-6,847	-10,340
신용융자(KSE+KOSDAQ)	4,399	-18	-133	-77	-415	487
MMF	75,642	-257	2,729	6,217	-466	11,971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28 투자주체별매매동향

(누적,KSE+KSQ,십억원)	주간	월간	3 개월	6 개월	YTD
외국인	432.6	-267.2	13,600.7	11,522.1	6,667.8
기관투자가	446.1	-36.1	-7,949.7	-4,708.2	1,574.8
(연기금)	204.8	1,093.9	2,666.8	5,753.0	9,668.1
개인	-802.7	490.1	-4,354.2	-5,176.5	-5,573.1
기타	-76.1	-186.8	-1,296.8	-1,637.5	-2,669.6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29 글로벌증시대비국내증시변동

섹터	주간수익률(%)			투자자매매동향 (5 일누적,십억원)		
	한국	MSCIACWI	편차	기관	외국인	개인
전체	2.1	0.4	1.7	444.9	470.9	-853.0
에너지	0.9	-1.8	2.7	43.4	-51.4	1.6
소재	0.7	0.2	0.6	41.5	-25.1	-26.3
산업재	1.7	0.6	1.1	4.8	0.7	-9.2
경기소비재	0.8	1.1	-0.3	13.8	-56.1	39.0
필수소비재	2.4	-0.2	2.6	39.3	10.0	-48.9
의료	3.1	0.4	2.8	22.1	17.4	-34.0
금융	1.0	0.5	0.5	-41.3	85.5	26.8
IT	4.1	2.0	2.1	282.4	515.9	-785.3
통신서비스	2.7	0.3	2.3	20.7	-36.0	13.0
유틸리티	-1.8	-0.7	-1.1	18.1	10.2	-29.6

Source:IBES,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0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수종목

주간기관순매수		주간외국인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삼성전자	76.1	SK하이닉스	269.4
삼성전기	70.8	삼성전자	193.9
SK하이닉스	57.5	NAVER	81.6
SK텔레콤	38.5	기업은행	77.1
SK이노베이션	38.3	현대중공업	24.6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1 주간투자주체별주요순매도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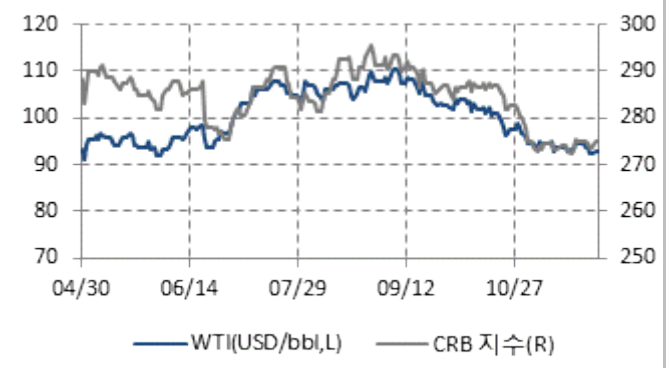
주간기관순매도		주간외국인순매도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기업은행	-60.9	기아차	-76.9
한국타이어	-28.8	SK이노베이션	-36.8
현대위아	-24.5	SK텔레콤	-29.4
현대중공업	-24.3	삼성전자우	-28.3
삼성중공업	-23.9	NHN엔터	-25.9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4.원자재가격동향

국제 원유가격은 이란 핵협상 타결로 5 개월내 최저치를 보였으나 미국 동북부 한파로 인하여 천연가스 가격은 3.8% 상승하였다. 국제 금가격은 11 월초 1300 불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간기준으로는 큰 변동이 없이 온스당 1250 달러로 마감하였다. 한편, 비철금속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여 구리 가격은 톤당 7055 달러로 마감하였다. 대두가격은 미국 수출호조가 자국내 공급부족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1.3% 상승을 보였고 밀 가격은 1.8% 상승을 보였다. BDI 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량 증가전망으로 22.8%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Exhibit 32 원유(WTI)와 CRB 상품지수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3 금과 LME 니켈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4 옥수수와대두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5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낸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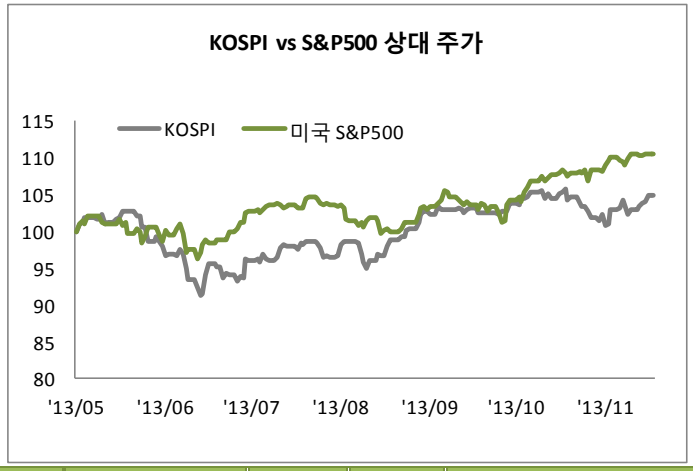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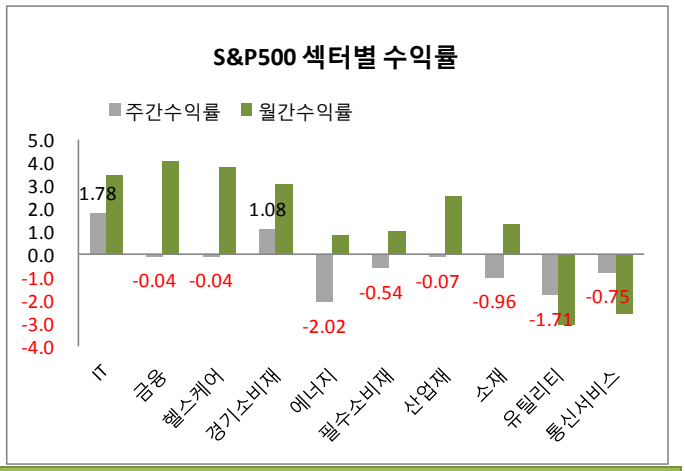
Exhibit 36 주요원자재가격동향

주요원자재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WTI(NYMEX)	92.7	-1.9	-4.2	-13.9	1.0
Brent(ICE)	109.7	-1.2	0.2	-0.2	5.0
천연가스(NYMEX)	4.0	3.8	6.5	0.7	-2.4
금(NYMEX)	1,250.0	0.5	-7.3	-10.5	-25.9
은(CME)	20.0	0.7	-13.0	-15.0	-34.2
구리(LME)	7,055.0	-0.6	-3.2	-0.6	-11.0
아연(LME)	1,887.0	-1.2	-4.2	-0.9	-9.3
니켈(LME)	13,515.0	-0.3	-8.4	-2.1	-20.8
알루미늄(LME)	1,755.0	-1.5	-7.3	-3.2	-15.3
CRB 상품지수	275.0	-0.1	-1.8	-5.6	-6.8
밀(CBOT)	668.8	1.8	-2.6	0.5	-19.6
옥수수(CBOT)	424.5	-1.1	-3.9	-14.2	-30.4
대두(CBOT)	1,336.5	1.3	4.7	-1.3	2.1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10.3	1.1	1.2	11.5	32.9
NAND 16Gb MLC	3.5	-1.1	-2.2	13.7	84.1
DDR3 1G 1333MHz	1.4	-0.7	-9.8	19.0	106.0
Baltic Dry Index	1,821.0	22.8	22.7	60.9	160.5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5.미국섹터/종목뉴스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에너지	엑슨모빌	XOM	-1.3	■ **슐럼버그,** 이란 핵개발과 관련한 제네바 협상의 타결로 인해 유가가 떨어져 정유산업의 주가가 하락했고, 슐럼버그의 낙폭이 컸음 ■ 미국의 '셰일 혁명'이 앞으로 5 년 뒤 정점을 찍고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음.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산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쓸만한 셰일 광구가 거의 다 소진되면서 채굴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에서 셰일오일채굴업을 하는 브라이언셰필드씨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시추시설의 절반을 폐쇄하고 다른 업체에 넘길 계획. 텍사스와 뉴멕시코 경계에 있는 퍼미안 분지에는 5 조 달러 어치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가 하락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탓
	셰브론(CVX)	CVX	-0.8	
	슐럼버그	SLB	-2.8	
소재	몬산토	MON	1.3	■ **알코아,**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 ■ **금**, UBS 가 단기 금 가격 목표치를 하향 조정. 가격 상승을 이끌만한 촉매제가 부족하다는 판단. 달러 약세, 미국의 재정·정치적 불확실성과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승 촉매제에도 금 가격은 그간 시장 예상보다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 그 이유. 가격 하락의 완충제 역할을 할 현물시장의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 인도 수요가 규제 탓에 제한되고 있어 계절적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음
	알코아	AA	5.4	
	바릭골드	ABX	-2.1	
산업재	캐터필러	CAT	3.0	■ **캐터필러,**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 ■ **보잉**, 747-8 기와 787 드림라이너 엔진 오류에 대한 우려감 발생 ■ **철도 관련주**, 셰일오일 개발 붐의 수혜주. 미국과 캐나다는 땅에서 뽑아낸 셰일오일을정유사로 운반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해 셰일오일이 기차를 통해 운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철도 관련주가 주목
	보잉	BA	1.0	
	쓰리엠	MMM	2.4	
경기소비재	홈디포	HDH	1.1	■ **티파니,** 주얼리 소매업체 티파니.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제시. 3 분기 순이익이 9460 만 달러, 주당 73 센트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주당 58 센트를 크게 상회. 전년동기의 6,320 만 달러, 주당 49 센트보다 50% 이상 개선된 수준. 올해 회계연도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주당 3.65~3.75 달러로 제시해 당초 전망치인 주당 3.50~3.60 달러보다 높여 잡았음
	염브랜드	YUM	3.7	
	티파니	TIF	9.4	
필수소비재	월마트	WMT	2.7	■ **월마트,** 온오프 라인 통합 마케팅 적극 나섬. 올해 추수감사절 세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을 온라인 사이트인 월마트닷컴에서도 동시에 판매할 계획. 이 같은 변화는 점차 줄어드는 매출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 월마트는 최근 3 분기 연속 동일 점포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 추수감사절 대목에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 이와 관련, 조엘 앤더슨월마트닷컴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 ■ **JC 페니**, S&P500 지수에서 퇴출될 전망. 퇴출 이유는 시가총액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 때문. JC 페니가 11 월 들어 상승폭이 올라가긴 했지만 연초 이후 약 50% 이상 하락. 론존슨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되기도 했음. 3 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음. 한편 JC 페니는 베네수엘라의 항공사 에어로포스탈을 밀어내고 S&P 중형주 4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될 전망
	코카콜라	KO	-0.6	
	JC페니	JC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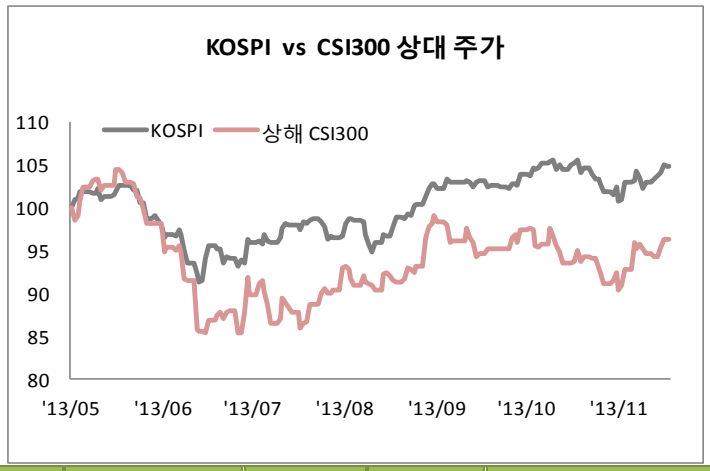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JNJ	-0.6	■ **바이오젠아이덱**, 미국의 생명공학 및 제약 업체인 바이오젠. 다발성 경화증 약물인 텍피데라가 유럽에서 10 년간의 특허권 보호기간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 Credit Suisse 에는 동사에 대해 '긍정'의 투자 의견을 제시 ■ **글로벌 제약업계,** 글로벌 제약업계가지난 2004 년부터 2013 년에 이르는최근 10 년의 기간동안 가장 많은 금액을연구·개발에 투자한 '톱 50' 기업리스트에 16 곳의 이름을올림. 2013 년 EU 산업별 R&D 투자 스코어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기업들 가운데서 스위스 로슈가 가장 높은 6 위(11 계단 상승)에 오른 가운데 스위스 노바티스가 7 위(13 계단 ↑), 미국 머크&컴퍼니가 8 위(21 계단 ↑), 미국 존슨&존슨이 9 위(3 계단 ↑), 미국 화이자가 10 위(8 계단 ↓)를 각각 차지하면서 5 곳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음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GILD	4.4	
	바이오젠아이덱	BIIB	15.3	
금융	JP모건	JPM	0.0	■ **미국 은행,** 3 분기 순익 4 년만에 감소. JP 모건의 벌금 탓. 미국 은행들의 3 분기 순이익이 360 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 억달러 감소. 미국 은행의 순익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9 년 2 분기 이후 처음. FDIC 는 미 은행의 순익이 4%가량 감소한 데에는 JP 모건의 벌금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JP 모건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면 은행의 순익 증가 추세는 이어졌을 것이라고 설명
	뱅크오브아메리카	BAC	1.5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2.0	
IT	구글	GOOG	2.5	■ **구글,** IT 섹터 가운데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추가 상승 여지가 상당함. 지난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엑손모빌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연초 이후 구글은 50%에 달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엑슨모빌은 9% 오르는데 그치며 지수 수익률에 뒤쳐지고 있는 상황 ■ **인텔,** IT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데이를 개최한 가운데 인텔이 파운드리(위탁생산)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나치게 PC 용 반도체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모바일쪽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주가는 하향 추세를 보였음. 인텔은 2011 년 이후 실적이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고, 애널리스트데이에서 제시한 내년 매출액 전망치도 526 억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했음 ■ **HP,** 기업 대상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 분기에 월가 전망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 4 분기 매출이 291 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실적 300 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전망치 279 억 달러는 상회. PC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맥 휘트먼 HP 최고경영자(CEO)가 공을 들이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동기 보다 2% 증가한 것이 매출 개선의 토대가 됐음. 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서버 판매와 네트워킹 사업이 각각 10%, 3% 증가
	인텔	INTL	-0.0	
	휴렛팩커드	HPQ	9.3	
통신서비스	AT&T	T	-0.3	■ **통신사,** AT&T를 포함한 미국 이동통신사 세 곳이 스팸문자 발송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사기 행각 근절에 나섰음. 미 대형 통신사 AT&T, 스프린트, T모바일은 소비자들이 지난 수년간 서드파티 업체로부터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 가입을 강요받았고 문자 수신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프리미엄 문자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힘.
	버라이즌	VZ	-1.5	
	T모바일	TMUS	-2.9	
유틸리티	듀크에너지	DUK	-1.1	■ **듀크에너지,** 자회사인 Duke Energy Renewables 에서 2009 년 이후로 보호새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1mn 벌금을 지불했음.
	서던	SO	-1.8	
	엑셀론	EXC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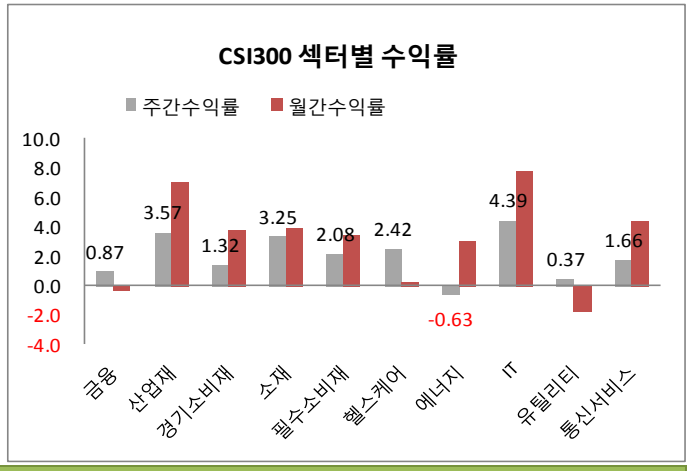
Any Comment or News

✓ 2004~2013년 기간 동안의 R&D 랭킹 '톱 50' 리스트를 보면 독일 폴크스바겐이 1위, 한국의 삼성전자가 2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를 차지하면서 '빅 3'를 형성. 글로벌 제약 및 생명공학업계는 올해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 투자금액을 의미하는 R&D 투자비중 부문에서 14.4%를 기록하면서 높은 비중을 점유. 2위는 9.9%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부분이 차지했고, 3위는 7.9%의 테크놀로지

✓ 하드웨어 및 장비 부문의 몫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R&D 투자액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이익률이 최소한 4%를 상회한 14개 생명공학기업이 2,000개 기업에 포함

6.중국섹터/종목뉴스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석유화학	페트로 차이나	0857	-2.7	■ 시노펙, 칭다오 송유관 폭발 사고로 55 명의 사망자 발생. 시노펙 악재로 지난주 석유화학주 약세. ■ 시노펙, 캐나다 액화석유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지분 일부를 미국 에너지업체 아파치로 부터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 국가에너지국, 석유, 가스 탐사,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민간투자를 적극 지지.
	시노펙	0386	-5.0	
	시누크	0883	1.1	
리테일	Chow Tai Fook	1929	-1.8	■ Chow Tai Fook, 1H FY2013 매출액 377.68 억 HKD 로 YoY +48.5%, 순이익 35.09 억 HKD 으로 YoY +92.3%, 매장수 118 개 증가한 1,954 개. ■ Look Fook, 1H FY2013 매출액 100.7 억 HKD 로 +YoY +70%, 순이익 9.65 억 HKD 로 YoY +73%, 동일점포 매출증가율은(SSSG) 62%, 그 중 홍콩 및 본토의 SSSG 각각 57.9%, 95.5%
	LukFook	0590	-4.7	
	Hengdeli	3389	-1.6	
건축자재	콘치 시멘트	0914	4.9	■ 9 월 이후 시멘트 가격 상승세. 1) 4 분기 성수기로 시멘트 수요 증가세 2) 환경규제로 인한 가동률 감소, 화동과 화남지역 시멘트 기업의 공급제한으로 수요 부족을 초래. 지난주 시멘트섹터 강세를 보임.
	산수이 시멘트	0691	15.4	
	BBMG	2009	8.0	
부동산	해외발전	0688	0.6	■ 중국 70 개 주요도시 10 월 신규 주택 가격이 YoY+ 9.6% 급증하며 10 개월째 상승세를 기록. 특히 상하이 집값이 YoY+ 21.4% 뛰며 70 개 도시 중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을 비롯해 베이징・광저우・선전 등 1 선 도시 집값 오름폭도 모두 20%를 상회.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 선 도시에 이어 항저우, 난징, 샤먼 등 2 선 도시를 포함한 14 개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를 시행. ■ 에버그랜드, 건축 및 장식 종합 시공업체인 선전 그랜드랜드 데코레이션과 MOU 체결.
	화룬토지	1109	1.4	
	에버그랜드	3333	0.0	
증권사	해통증권	6837	3.7	■ 중앙은행 저우샤오촨 총재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교역 및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자본 계정 개방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 또한 향후 금융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와 QDII(적격국내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 적절한 시기에 QFII 와 QDII 의 정부 승인도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 금융주 강세. ■ 해통증권, 27 일 120 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 발행.
	신은만국	0218	-4.5	
	중신증권	6030	3.7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철도운수 및 장비	중국 남차	1766	4.7	■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중동부 유럽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후 곧이어 16 개국 정상들과 함께 '중국 고속철 및 인프라와 장비 제조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중국의 가격성능대비 경쟁력이 우월한 철도 건설 능력을 강조. 지난주 철도인프라 관련주 강세. ■ 중국 철도건설, 최근 206.36 억 위안 규모에 달하는 5 개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이는 지난해 매출의 4.26% 비중을 차지.
	중국 철도그룹	0390	-1.1	
	중국 철도건설	1186	-0.5	
은행	중국공상은행	1398	0.4	■ 중앙은행 저우샤오촨 행장은 금리 자유화 및 외환시장 개입 축소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 ■ 중앙은행 인민은행 이강 부총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건이 성숙되면 예금금리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건이 성숙된 때란 중앙은행의 현행 예금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라고 언급.
	중국농업은행	1288	0.8	
	중국은행	0939	0.2	
IT	텐센트	0700	5.6	■ 텐센트, 11 월 28 일부터 위챗 플랫폼에서 샤오미 3 스마트폰 15 만 대 판매 계획, 22 일부터 예약접수 진행. ■ 레노버 그룹, 11 월 28 일 프리미엄 스마트폰 VIBE Z 출시, 판매가격은 3399 위안으로 12 월 11 일부터 판매 예정. ■ ZTE 통신, 동사 인도 자회사의 올해 1 월~10 월 매출액이 4 억 달러를 기록. 내년 마케팅과 브랜드 프로모션에 1000 만 달러를 투자, 매장 개설과 모바일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전함.
	레노버그룹	0992	1.8	
	ZTE 통신	0763	-0.1	
통신	차이나 모바일	0941	3.8	■ 제일재경(CBN)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이 오는 12 월 18 일부터 4G 상용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새로운 4G 브랜드 파트너를 발표할 예정. 남방도시보는 정부에서 11 월 28 일에 4G 라이선스 발급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TD-LTE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이라고 전함.
	차이나 유니콤	0762	2.0	
	차이나 텔레콤	0728	1.9	
해운	해운 컨테이너	2866	1.5	■ 중국 교통부, 해운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계획안을 관련부서에 제출했다고 밝힘. 쑹더싱 교통부장은 11 월 28 일에 열린 한 포럼에서 운송, 항만, 해로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전함. 또한 앞으로는 초대형 크루즈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장래에는 해운업과 관련한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없애거나 간소화하고 노후 선박들은 퇴출시키겠다고 전함. ■ 지난주 BDI 지수 지속적 상승세 및 정부의 정책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 강세를 보임.
	코스코	1919	5.0	
	해운개발	1138	5.4	

Any Comment or News

✓1월~10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 순이익은 46,263.2억 위안으로 YoY+13.7%. (전월치: YoY+13.5%)

✓발전개혁위원회, 금일부터 휘발유, 디젤유 가격을 톤당 각각 160위안, 155위안 인상

✓도이치뱅크, 올해 4분기 중국 GDP 성장률 7.9%, 내년 GDP 성장률 8.6%로 예측.

✓국무원, <석탄산업의 안정적 발전 촉진에 대한 의견>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석탄의 과잉생산 규제, 석탄기업의 세수 부담 감소, 석탄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여 저품질 석탄 수입을 금지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23일 열린 <2013~2014년 중국 거시경제포럼>에 참석하여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을 각각 7.8%, 7.7%로 전망.

투자전략팀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담당 (R. 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담당 (R. A)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2013**LeadingInvestment&SecuritiesCo**.Allrightsreserved*